

# 공감하지 않는 예술은 '쇼'... 시민과 소통하라

## 고품격 문화수도를 디자인하자

(5) 시민속에서 작품을 말하라

지난 주말 찾은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관람객들로 붐비던 틈이 없었다. 대부분은 가족 단위였고, 전시에 꼭 빠져 있는 안도 금일초등학교 학생 41명도 눈에 보였다.

지난달 25일부터 열리고 있는 '미술관에 놀러 왔어요'전은 벌써 5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50여 평 남짓한 갤러리에 이렇게 많은 수의 관람객이 다녀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만지고, 즐길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문화도시 광주에는 많은 미술관과 갤러리, 공연장이 있지만 정작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은 드물다.

광주지역 일부 미술관과 갤러리는 관람객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다. 일부 전시나 공연은 관람객의 숫자를 손으로 셀 정도다. 시민들과의 소통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정체성을 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미술관과 갤러리, 공연장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작품만을 전시하거나 무대에 올리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살아 있는 문화공간이라 할 수 없다.

5월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사립미술관이 시민들과의 호흡에 나선 것은 '소통'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Museum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오월 한 달간 전시와 함께 작가와의 대화, 작품 설명회, 세미나, 작업실 탐방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Museum Open Day'라는 이름으로 미술관을 밤 10시 까지 오픈 한다. 미술관을 찾으면 작가에게 직접 작품 설명과 향후 계획까지 들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 작가와와의 대화 등 작품 이해 도울 장치 마련

### 공공미술, 누구나 경험 할 수 있는 공간돼야

쉽게 접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행사가 5월 한 달에만 그친다는 것은 아쉽기만 하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는 국내 작가들의 초대전이 열릴 때마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를 1~2차례씩 열고 있다. 올해에만 5차례의 행사가 있었다. 작가에게 직접 작품 설명과 향후 계획까지 들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타악그룹 '얼수'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토요일 상설공연도 시민들과 소통하는 한가지 방법이다. 옛 대촌동 초등학교를 공연장으로 꾸며 매일 마저마 주 토요일 열고 있는 상설공연

은 관객들과 만나고, 놀고, 먹고, 즐기는 행사가. 관객들과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자리기도 하다.

공공미술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통 부재, 일방적인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금남로 조각의 거리다. 좁은 거리에 많은 조각만 밀어 넣으면 조각의 거리가 된다. 광주시 동구의 행정 때문에 시민들에게 조각 작품은 감동보다는 통행을 방해하는 존재가 됐다.

반면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대인시장은 최근 대인예술시장으로



문화공간은 전시와 공연을 통해서 관람객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사진은 지난 주말 관람객으로 붐비고 있는 광주 신세계갤러리. <광주신세계갤러리 제공>

불린다. 비엔날레와 각종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재래시장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작품들은 죽어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이제 상인과 함께 예술인들이 더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했다.

광주지역 한 미술계 인사는 "관람

객들이 열린 눈과 마음으로 작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가나 미술관의 노력도 중요하다. 관람객이 찾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예술은 쇼에 불과하다"며 "단순한 소통을 떠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섭'의 자세가 필

요하다"고 지적했다. 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원장은 "모든 공공미술은 시민과의 합의가 기본이 되어야만 시민들이 새로운 활동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호남예술제 현악 입상자

- <심사위원> 이형석(전남대 교수) 배상철(목포대 교수) 현순이(광주대 교수) 양승돈(원광대 교수)
- <바이올린(초등 1,2)> ▲금상 4 김윤강(광주삼육 1) ▲은상 3 김예화(광주대성 2) 9 구에서(구례북 2) <바이올린(초등 3,4)> ▲금상 6 한다원(광주송원 4) 10 김정환(광림 3) 12 심아영(하백 3) ▲은상 3 조예영(영주 4) 11 이정인(광주송원 4) 13 김나운(순천왕지 4) 14 김현수(광주송원 3) 17 한수연(불모 3) 20 오승아(광주삼육 4) ▲동상 1 신승우(광주송원 4) 15 유채린(살레시오 4) 16 오수연(광주송원 4) <바이올린(초등 5,6)> ▲최고상 5 현여연(광주송원 6)
- ▲금상 2 정산하(광주남 6) 14 형준서(금천 5) 16 이여디디아(운암 5) ▲은상 6 이 슬(담양남 6) 12 이소은(광주삼육 6) 22 윤재연(만호 6) ▲동상 1 김가연(광주송원 5) 7 조 은(광주삼육 5) 11 송예령(광주교대목포부설 5) 13 조영훈(광주송원 6) 21 박 민(광주송원 5)
- 4 조연진(전주교대전주부설 6) ▲은상 2 임희진(광주송원 5)
- <비올라(초등 3,4)> ▲은상 1 조 영(광주삼육 3) <비올라(초등 5,6)> ▲금상 1 김민수(신암 5)
- <더블베이스(초등 5,6)> ▲금상 1 김우진(목포대성 6)
- <첼로(중등 1,2)> ▲최고상 1 이현민(운남 2) ▲금상 2 황의정(진남 1) ▲첼로(중등 3) ▲금상 3 정예원(익산부천 3)
- <비올라(중등 1,2)> ▲은상 1 김예린(광주신가 1) 2 박해림(전주 2) <비올라(중등 3)> ▲금상 3 박진영(전주예술 3)
- <바이올린(중등 1,2)> ▲금상 1 신혜비(금남 2) 5 김나운(1999년생) ▲은상 4 정서현(호남삼육 1) ▲동상 3 이서안(삼일 2) <바이올린(중등 3)> ▲금상 6 문민주(동신여자 3) 7 신애은(광주중앙 3) ▲은상 8 김민정(여도 3) 13 이주영(구례여자 3) ▲동상 10 한하은(합평여자 3) 11 김여경(진남 3) 12 허자연(여도 3)
- <첼로(고등 1,2)> ▲금상 1 설유승(광주예술 2) 4 강시훈(전주예술 2) ▲은상 2 윤승아(전주예술 2) ▲첼로(고등 3) ▲금상 3 서지수(광주예술 3) 7 박예현(전주예술 3) ▲은상 8 나경채(운남 3)
- <비올라(고등 1,2)> ▲금상 1 강희원(전주예술 2) ▲은상 2 심선영(광주예술 2) <비올라(고등 3)> ▲금상 4 김소연(광주예술 3) ▲동상 3 조우리(여수진성여자 3) 5 성채린(광신여자 3)
- <바이올린(고등 1,2)> ▲최고상 2 윤지은(광주예술 1) ▲금상 3 고은진(성요셉여자 2) ▲은상 1 정다정(목포해인여자 2) <바이올린(고등 3)> ▲금상 11 김지민(빛고을 3) 14 김혜수(광주예술 3) ▲은상 6 이윤경(전남예술 3) 8 나유리(전주예술 3) 13 이 진(여수충무 3) ▲동상 10 위가을(광주예술 3)

### '김종률의 입을 위한 행진곡'

18일 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

5·18을 대표하는 노래인 '입을 위한 행진곡'의 이름을 건 음악회가 18일 광주에서 개최된다. 5·18 기념재단은 15일, 입을 위한 행진곡의 작곡가인 김종률(55·JR 미디어 대표·사진)씨가 전체기획과 사회를 맡은 '2013 광주 인권상 축하 음악회'를 18일 오후 7시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명은 '김종률의 입을 위한 행진곡'으로, '2013 광주인권상' 수상단체인 이호스(H.I.J.O.S·망각과 침묵에 대항하여 정체성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아들 딸들)의 파도리 줄리아, 카리 마르코스 공동대표를 비롯, 와유무리야디 탭포 편집장(특별상)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1980년대에 김 대표가 작곡한 '입을 위한 행진곡', '검은 리본 달았지', '밤이 오는 것일까' 등의 곡들이 연주되며, 그가 중간 중간 무대에 올라 관객에게 당시 시대 상황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12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연 무료. 문의 062-360-0524.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로고·포스터 EIP 발표

### '거시기 머시기' 소통과 관계의 미학

광주비엔날레재단이 15일 '거시기, 머시기'를 주제로 열리는 '2013 광주 디자인비엔날레(9월6일~11월3일)' 로고, 포스터 등에 사용되는 기본 EIP(Event Identity Program·사진)을 발표했다.

디자인기업 '601비상'이 디자인한 이번 EIP는 한글의 기하학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주제에 담긴 소통과 관계의 의미를 함축한 것이 특징이다.

디자인은 "'거시기, 머시기'란 단어는 불특정하면서 무의미한 기표(記標)로 쓰이지만, 주고받는 이들에게 서로 통하고 친근한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통과 관계를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드마크 타입의 로고는 세로로 배열된 '거시기'와 '머시기'를 마치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는 듯한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공식포스터도 주제를 부각시키고 공간과 구조 속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이어가는 디자인의 존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한편 601비상은 지난해 세계 3대 디자인 상 가운데 하나인 레드닷어워드(RED DOT Awards)를 수상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1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세계최고 단롭침대 라텍스 판매**

**중저가 엔틱스파 7종류 신상품**

**중저가 확장형식탁, TV장 신상품**

**자하 1,2층 할인매장 1,2 이태리 가구 3층 단롭침대 4,5층 모던,훈수가구**

NAVER **홍스페이스** www.hong79.com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홍스페이스** 1899-0240